

IV. 附錄

1. 經濟 關聯 社說 抄錄

방만한 운용으로
위기를 맞고 있는
국민연금제도를
개선하기 위해 이
른 시기에 처방이
있어야 함

■ 운용 개선 시급한 국민연금

○ 放漫한 運用으로 2030年代 完全 破産 憂慮

- 지난 88년부터 시행된 國民年金制度가 10년이 채 못 되어 危機를 맞고 있음
- 총 적립액 23조 8,722억 원 중에 公共 部門 명목의 정부 재정 차입에 67.4%, 예금, 주식 등 金融 部門에 29.4%, 福祉 部門에 3.2%가 투자되고 있음
- 이중 공공 부문의 年間 收益率은 10.3%로 금융 부문 수익률 11.9% 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임
- 국민연금이 전국민의 老後를 保障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가 부족한 財源을 調達하는 손쉬운 방편이 되버림
- 국민연금은 福祉 社會의 첫 걸음인 만큼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가 오기 전에 올바른 처방이 있어야 함
(「서울경제신문」, 97. 7. 5)

■ 國策事業 확실히 釐거야

○ 國策 事業 所要 豫算이 大幅 增加

국책 사업의 예산
증가를 막기 위해
기획 단계부터의
투명성 확보, 권한
과 책임 소재의
명확성 확보 등이
요구됨

- 경부고속철도, 영종도 신공항 등 大型 國策 事業의 事業費가 처음 계획보다 2~3배 정도 늘어남
- 현재까지의 예산 증가액이 올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32조 5,298억 원에 이름
- 대형 국책 사업의 企劃 및 基本 設計 段階부터 透明하고 客觀的인 검토가 있어야 함
- 特定 地域 및 利害 集團의 情탁과 압력이 개입되기 쉬우므로 輿論의 철저한 검증과 비판을 받아야 함
- 事業 推進 主體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權限과 責任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함
-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關聯 部處가 많아 자칫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기 쉽기 때문임
(「한국경제신문」, 97. 7. 8)

인터넷 거래의 자유화 움직임으로 다가오는 '시장 혁명'을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

■ 인터넷 교역, 위기와 기회

○ 電子 商去來 自由化 論議가 急速度로 進展

- 美國의 클린턴 대통령이 인터넷을 自由 交易 地帶로 선언할 것을 제창하고, 40개국 경제 장관회의에서도 電子 商去來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됨
- 인터넷 교역이 자유화되면 세계 경제에는 '市場 革命'이 일어날 것임
 - 情報 革命에서 뒤진 국가의 중소 무역업체나 오피상 등은 존립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됨
 - 이러한 危機는 應戰에 따라 機會로 反轉될 수 있음
 - 國外依存型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국가에게는 관세와 국경이 없는 자유 교역 지대의 확대를 의미함
- 따라서 인터넷 거래의 필수 요소인 네트워크 標準化 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, 소프트웨어 技術力 및 브랜드 파워 등도 伸長시켜 나가야 할 것임

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7. 9)

■ 해외여행 씬씀이 헤프다

○ 無分別한 海外旅行과 過消費로 旅行收支 赤字 增加

- 韓國銀行에 따르면 4월까지 海外 旅行客은 지난해보다 5.6% 증가한 153만 명에 달하며, 1인당 1,500 달러 이상을 지출함
 - 반면에 外國人의 국내 지출 경비는 1인당 1,100 달러로 작년보다 200 달러 이상 감소하였음
- 이로 인해 5월까지 旅行收支 赤字가 12억 2,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33.2%가 증가하였음
 - 이는 전체 貿易外收支 赤字의 1/3을 차지함
- 최근 수출의 回復勢로 무역수지 적자는 줄어들고 있으나, 해외여행 經費로 막대한 外貨가 流出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
- 올해도 경상수지 적자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不要不急한 해외여행 過消費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함 (「내외경제신문」, 97. 7. 10)

해외여행객의 계속된 증가와 과소비로 인해 여행수지가 막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은 자제되어야 함